

#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 교육 연구

위윤\*, 김정아\*\*

|| 차례 ||

- I. 들머리
- II. 연구 배경 및 방법
- III.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 양상
- IV. 신체어 합성명사의 교육 내용 및 방법
- V. 마무리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를 개념적 은유와 환유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의미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어휘 학습에 있어 어휘의 양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질적 능력, 즉 어휘를 생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어휘의 의미가 불투명하거나 비유적이면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불투명하고 비유적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기초 어휘인 신체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신체어 합성명사를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 방법은 한국어의 보편적인 개념화 방식을 알 수 있어 어휘 확장의 원리, 합성어의 의미 결합 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신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신체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신체를

\* 제1저자: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그릇’으로 여기기도 하고 ‘물건’, ‘사물’, ‘동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한편 신체의 일부를 통해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신체가 가진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의 이러한 인지 능력은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라고 하는데, 이는상당히 보편적인 사고 원리이다. 개념적 은유와 환유에 의해 합성된 신체어 합성명사를 분석하여 신체어를 개념화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해 보았다.

주제어: 합성어, 신체어, 인지언어학,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한국어 교육

## I.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에 기반하여 신체어 합성명사를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합성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sup> 어휘는 언어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목표어의 유창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제2언어학습에서 어휘접근법(the lexical approach)를 주장한 Lewis(1993/1997)는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가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차이는 문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정신적 어휘부(mental lexicaon)에 있음을 강조했다.<sup>2)</sup> 즉 외국어 교육에서 무엇보다

1) 이 연구에서는 신체어가 포함된 합성명사를 ‘신체어 합성명사’라고 부를 것이다. 신체어 합성명사는 ‘손’, ‘발’, ‘얼굴’, ‘목’ 등과 같은 신체어가 구성요소인 합성어를 말한다. 신체어가 포함된 합성어는 ‘배고프다’, ‘배부르다’와 같은 형용사와 ‘발맞추다’, ‘머리하다’, ‘눈뜨다’와 같은 동사도 있지만, 합성명사만큼 많은 예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명사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Lewis(1993)는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는데, 그는 문법도

중요한 것은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은 많은 양의 단어를 아는 ‘양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각 어휘소가 갖는 의미와 용법에 관한 이해, 구사 능력인 ‘질적 능력’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어휘 구사가 가능하다.<sup>3)</sup>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은 습득(acquisition)이 아닌 학습(learning)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어휘를 익혀야 하므로 전략적인 학습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지언어학의 이론에서 효율적인 어휘 학습 전략을 찾으려고 한다. Low(1988)에서 은유(metaphor)가 L2 언어학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인지언어학의 은유와 환유는 외국어 학습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로우는 ‘은유적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은유나 문자적·은유적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곧 학습자의 유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Piquer-Piriz(2008)는 어린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신체어를 은유적 의미로 이해할 때 은유와 환유와 같은 의미적 동기(motivation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모국어 화자들이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추론되는 은유와 환유와 같은 기제를 어휘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지용·심지연(2010), 이선희(2014), 박근희(2015)에서는 관용표현을 은유와 환유로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다. 또 개별

---

어휘로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법을 포함한 표현 단위를 하나의 어휘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3) 김광해(1993: 306-314)에서 언중들의 어휘력에서 ‘질적 능력’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단어의 의미, 다의, 속어, 속담 등)와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유의관계, 반의관계, 공의관계)라고 했다.

어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함계임(2013), 김효신(2014), 정수진(2011) 등에서는 조사와 연결 어미, 박수경(2010)에서는 ‘잡다’, 서강조(2019)는 ‘이다’, 박화경(2020)은 ‘빠지다’, 최혜림(2016)은 ‘뜨다’에 대한 다의적 의미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연구는 개별 어휘나 품사에 집중하여 다의적 양상과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어휘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히 기초 어휘인 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의 의미확장 원리를 탐구하고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sup>4)</sup> 이것은 첫째, 신체어의 의미확장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합성어를 형성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셋째, 신체어로 구성된 관용표현이나 속담으로 학습 내용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와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신체어 합성명사를 개념적 은유와 환유로 분석하고, 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4) 기초 어휘는 언어생활에서 빈도수가 높고, 분포(사용범위)가 넓으며, 파생이나 합성 등 이차조어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필수어이다(임지룡 1991: 3). 신체 관련 어휘는 어휘체계 중 가장 기초어휘에 속하며 이들과 관련된 어휘는 신체화(embodiment)에 기초하여 의미확장이 일어난다.

## II. 연구 배경 및 방법

### 1. 개념적 은유와 환유

Lakoff & Johnson(1980: 5)은 은유를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에 의해서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은유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 언어화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지 과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제”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개념적 영역인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적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 구성된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대조적이며 비대칭적인 개념이다. ‘근원영역’은 우리에게 구조화된 경험으로써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며, 감각이나 운동 등과 같이 익숙한 영역이다. 반면에,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조화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영역이다. 인간에게는 구체적인 ‘근원영역’을 통해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개념화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은유가 가능한 것은 개념 영역 간의 ‘사상(寫像, mapping)’에 의해서이다. 영역 간의 개념적 사상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복되고 구체적인 신체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개념적 은유’를 인지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그리고 ‘방향적 은유’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노양진 · 나익주 공역 2006: 34, 임지룡 2006: 35 참조).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

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경우이며,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식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목표영역이 근원영역의 수준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다.” (노양진·나익주 공역 2006: 22; 임지룡 2006 참조).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는 추상적인 생각, 느낌, 사건, 행동 등을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며, 물리적 대상, 특히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경험은 존재론적 은유의 근거가 된다(노양진·나익주 공역, 2006: 49). ‘방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는 공간적인 방향과 관련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념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방향적 은유’는 대부분 ‘위/아래, 안/밖, 앞/뒤, 중심/주변, 오른쪽/왼쪽, 가까움/멀’과 같이 공간과 관련하여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서 ‘지향적 은유’라고도 부른다. 공간적인 지향성은 우리가 가진 신체와 그 신체가 우리 환경에서 기능한다는 사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방향적 은유’는 수직방향에서 ‘위/아래’ 개념이 근원영역으로 사용되어 [위는 많음, 좋음, 기쁨, 지배, 활성화, 건강이다], [아래는 적음, 나쁨, 슬픔, 피지배, 침체, 질병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지향한다. 수평방향에서는 ‘앞/뒤, 오른쪽/왼쪽, 가까움/멀’의 개념들이 근원영역으로 사용되어 [앞은 긍정적, 미래이다], [뒤는 부정적, 과거이다]은유, [오른쪽은 긍정적, 보수적이다], [왼쪽은 부정적, 진보적이다]은유, [가까운 것은 닮음, 친밀함, 현재 시점이다], [먼 것은 다름, 소원함, 미래 시점이다]은유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환유도 은유처럼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념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 태도, 행위까지 구조 짓는다.”고 하였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환유에 의한 개념적 관계들을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 [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 [사용되는 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함], [통제자로

피동제자를 대신함], [기관으로 책임자를 대신함], [장소로 기관을 대신함], [장소로 사건을 대신함] 으로 제시하였다. 이후의 연구인 Kövecses(2002:145)는 환유에 대해 “한 개념적 개체가 같은 영역이나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CM) 안의 다른 개념적 개체인 목표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유도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임지룡(2008)은 환유를 ‘확대 지칭 양상, 축소 지칭 양상, 상호 전이 양상’으로 나누고, ‘확대 지칭 양상’에는 ‘신체의 한 부분이 사람을 지칭, 사물의 한 부분이 사물 전체를 지칭, 소유물이 소유자를 지칭, 사건의 한 부분이 사건 전체를 지칭’을 포함하였다. ‘축소 지칭 양상’에는 ‘사물이나 신체의 전체가 사물이나 신체의 한 부분을 지칭, 그릇이 내용물을 지칭, 기관이나 단체가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을 지칭, 생산회사·생산지·생산자가 생산품을 지칭’, ‘상호 전이 양상’에는 ‘사건이 시간을, 시간이 사건을, 거리가 시간을, 시간이 거리를, 원인이 결과를, 결과가 원인을’ 지칭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상으로 합성어 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어 합성명사를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신체어’에 초점을 두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 어휘이면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신체어 ‘귀, 눈, 머리, 몸, 발, 손, 얼굴(뺨), 입’이 포함된 합성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sup>5)</sup>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합성명사를 선정하기 위해 『

5) 이상의 신체어는 관용구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몸, 손, 머리 등이 갖는 기능적 다양성과 중요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홍사만 2007: 201).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이하 『한국어 교육 어휘』)<sup>6)</sup>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연구』(이하 『국제통용』)<sup>7)</sup>의 어휘 목록에서 신체가 포함된 합성어를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육 어휘』와 『국제통용』에서 ‘귀, 눈, 머리, 몸, 발, 손, 얼굴(뺨), 입’이 포함된 합성명사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몸살, 몸단장, 몸동작, 몸매, 몸무게, 몸보신, 몸속, 몸싸움, 몸조리, 몸조심, 몸짓, 몸치장, 몸통, 알몸, 맨몸…  
 ㄴ. 손가락, 손바닥, 손수건, 오른손, 왼손, 손가방, 손등, 손목, 손발, 손뺨, 손끝, 손잡이, 손질, 일손, 맨손, 양손, 손맛, …  
 ㄷ. 한발, 왼발, 오른발, 손발, 발톱, 발짝, 발자국, 발바닥, 발목, 발등, 발돋움, 발끝, 발꿈치, 발길, 발걸음…

(1)의 예를 보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문자적 의미를 가진 합성어와 비유적 의미를 가진 합성어의 예도 보인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때 형태적인 결합과 의미적인 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합성명사는 형태적인 결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의미적 결합에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sup>8)</sup>

6)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은 지난 2012년부터 4단계에 걸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사업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총 10,635개(초급-1,835개, 중급-3,855개, 고급-4,945개)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어휘들은 어휘 정보(품사, 길잡이말, 연어, 관용어, 관련어)와 주제와 기능, 의미 범주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합성어 정보는 관련어 항목에 있다.

7)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용 연구』는 2010년부터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요목 설계, 교재 개발, 평가에 이르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한 보고서이다. 2010년 1단계, 2012년 2단계로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 점검 보완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4단계(2017년) 자료집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였다.



합성어는 합성명사의 구성요소가 각각 문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문자적 합성어(literal compound)’와 문자적 의미에서 떨어져 있는 ‘비유적 합성어(figurative compound)로 나눌 수 있다(김동환 2019: 206-207).<sup>9)</sup> 이 연구는 신체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원래의 의미에서 떨어져 있는 합성명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지게 되면 투명성(transparency)이 떨어지고 비유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Martize & Schumitt 2012: 304). 특히 합성어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합성어를 이해하는 데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지만 의미가 변화한 합성어의 습득에는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성요소에 의미변화가 일어난 합성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1)의 목록 중 신체어가 비유적 의미를 가진 합성명사를 선정하였다.<sup>10)</sup>

---

8)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어근의 형태적인 결합 양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임지룡 외 2005: 147-150 참조).

- ① 명사+ 명사: 둘다리
- ② 관형사+ 명사: 새해
- ③ 용언의 관형사형+ 명사: 늙은이
- ④ 용언의 명사형+ 명사: 볍음밥
- ⑤ 용언 어간+ 명사: 검버섯
- ⑥ 부사+ 명사: 산들바람

9) 복합어 혹은 합성어의 개념과 분류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로 전통문법에서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대등-종속-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예로 학교문법에서는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누고 있으며, 최현배(1929/2004)는 ‘늙은 겹씨’, ‘가진 겹씨’, ‘벌린 겹씨’로, 서정수(2006)에서는 ‘종속관계’, ‘병립(대등)관계’, ‘기타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시정곤(1998)에서는 의미관계에 따라 ‘상보복합’, ‘근접복합’, ‘포섭복합’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반해 인지언어학에서는 ‘문자적-비유적’ 합성어로 구분하고, 합성어 자체의 의미를 해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은유와 환유가 합성어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진해 2014, 김동환 2019, 김억조 2002a).

〈표 1〉 신체어 합성명사 목록

신체어	합성명사
귀	귀걸이, 귀동냥, 귀고리, 귀마개, 귀밑, 가느귀, 잠귀, 바늘귀
눈	눈치, 눈총, 찻눈, 눈싸움, 눈빛, 눈높이, 눈길, 눈가, 눈꼬리, 눈웃음, 눈인사, 실눈, 짝눈
머리	머릿속, 머릿수건, 머릿걸, 머리기사, 머리끈, 끝머리, 머리말, 머리통, 곱슬머리, 대머리, 더벅머리, 머리띠, 머리빔, 머리채, 앞머리, 흰머리, 뺏머리, 베갯머리, 옆머리, 책머리, 파마머리, 꼴머리, 단발머리, 생머리, 안달머리, 인정머리
몸	몸보신, 몸속, 몸소리, 몸치장, 몸통, 몸시중, 온몸
발	손발, 발자국, 발바닥, 발목, 발등, 발돋움, 발끝, 발길, 발걸음, 발차퀴, 발야구, 발소리, 발밑, 발판
손	손바닥, 손수건, 손가방, 손등, 손목, 손끝, 손질, 일손, 손맛, 손거울, 검은손, 손버릇, 손빨래, 빈손, 손길, 손난로, 손때, 손세탁, 손안, 손자국, 손제주, 약손, 손지갑, 손칼국수
얼굴(낯)	얼굴도장, 얼굴빔(낯빔), 얼굴색(낯색), 얼굴선, 얼굴형, 낯가림
입	입김, 입맛, 입속, 입가, 입꼬리

〈표 1〉은 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신체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합성명사를 선정한 것이다. 이상의 목록을 대상으로 신체어의 의미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 10) 이 연구에서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는 『한국어 교육 어휘』와 『국제통용』에 제시된 ‘길잡이말’을 기준으로 『우리말샘』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은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의 예문을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 Ⅲ.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 양상

이번 장에서는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 유형을 개념적 은유와 환유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신체어가 어떻게 개념화 되어 합성명사의 의미에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은유에 의한 합성

##### 1). [신체는 그릇]에 의한 합성

인간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추상적인 대상에 ‘경계’를 부과하게 되면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이렇게 경계를 부과한 대상을 우리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Johnson(1987: 21-23)에서는 “공간적 경계를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인지 체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체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떤 물건들, 즉 음식, 물, 공기 등을 집어넣고, 음식물 찌꺼기, 공기, 혈액 등을 유출하는 삼차원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친숙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 유형으로 우리에게 몸이 있으며, 이 몸은 ‘신체 기관’, ‘액체’ 등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의 몸이 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큰 그릇으로 간주되는 사물 안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건물, 방, 숲 등의 큰 사물은 우리를 담는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신체 기관을 그릇으로 인지하여 개념화한 것이 있다. [신체는 그릇] 은유가 이에 해당된다.

- (2) ㄱ.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이 들다.  
 ㄴ. 나는 짐이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  
 ㄷ. 귀마개를 했더니 귀가 덜 시리다.  
 ㄹ. 승무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손님을 맞았다.  
 ㅁ. 골프를 칠 때는 몸통을 잘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2)는 신체를 그릇으로 여기는 표현이다. (2ㄱ)의 ‘머릿속’은 ‘머리 안의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내용물을 그릇에 넣듯이 머리를 그릇으로 보고,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인 생각이나 지식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연결 시킬 수 있다. 즉 ‘머리’로 뭔가를 사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이 ‘머리’ 안에서 생겨서 ‘머리’의 내용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ㄴ)의 ‘빈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역시 손을 그릇으로 인식하고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2ㄷ)의 ‘귀마개’는 소리가 안 들리게 귀를 막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귀를 덮는 물건으로 ‘귀’를 그릇으로 보고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ㄹ)의 ‘입가’는 입의 가장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입가’도 역시 입을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몸’도 그릇으로 표현한다. 이 은유는 몸 자체를 그릇으로 보고 개념화한 것으로, 내용물이 그릇인 사람 안에 들어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몸통’은 팔다리를 제외한 몸의 중심 부분을 이르는 말로, 몸을 일종의 통(용기, 그릇)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몸속, 손바닥, 발바닥, 손안, 눈가, 얼굴형, 입속, 머리통과 같은 예가 [신체는 그릇] 은유가 작용된 합성어이다.

## 2). [사물은 신체] 은유에 의한 합성

우리는 사물을 의인화하거나 구체물로 인식하고 표현한다. 즉 사물을

신체어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물리적 대상을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의인화’를 가장 명백한 존재론적 은유라 하였다. 대상 물체와 사람 신체의 형태나 위치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적 확장을 말한다. 신체어 합성명사에 [사물은 신체] 은유는 어떤 예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3) ㄱ. **뺏머리**를 둘러라.

ㄴ. 그는 읽던 책을 **베갯머리**에 놓고 잠이 들었다.

ㄷ. 할머니께서 눈이 침침하다며 **바늘귀**에 실을 꿰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ㄹ. 사람들은 대부분 신문을 받으면 우선 일면 **머리기사**를 읽는다.

(3)은 사물과 인간의 신체가 갖는 위치적,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형성된 합성어이다. (3ㄱ) ‘뺏머리’와 (3ㄴ) ‘베갯머리’는 각각 베의 앞쪽, 베개의 위쪽을 나타낸다. 베와 베개를 의인화하여 베의 앞쪽, 베개의 위쪽을 표현하고 있다. (3ㄷ)의 ‘바늘귀’는 실을 넣는 부분으로 사람의 귀와 모양, 위치의 유사함에서 기인한 합성어이며, (3ㄹ) ‘머리기사’도 ‘머리’의 위치와 중요성이라는 유사함이 합성어를 형성하는 데에 작용하였다. 사물을 특정한 속성을 신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책머리, 실눈, 온몸, 귀밑과 같은 예가 [사물은 신체]은유의 예가 된다.

3). [시간은 신체] 은유에 의한 합성

신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즉 실체가 없는 시간을 실체가 있는 신체어를 통해 나타낸다. 실체화 은유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물질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은유이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사물들

의 경계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나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범주화한다고 하였다. [시간은 신체] 은유에 의한 신체어 합성명사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ㄱ. 나는 이 글을 쓰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머리말**을 썼다.  
    ㄴ. 그는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느라 회의 **끝머리**에야 회사에 도착했다.

(4ㄱ)의 ‘머리말’은 책의 ‘시작’ 부분에 쓰는 글, (4ㄴ) ‘끝머리’는 회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4)의 예들은 모두 신체어 ‘머리’를 시간으로 표현한 예이다.

#### 4). [사람/동물은 신체] 은유에 의한 합성

우리는 사람의 신체와 동물, 신체의 부분과 사람 사이에서 지각한 유사성을 통해 합성명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 (5) ㄱ. **손목**에 시계를 차다.  
    ㄴ. 한겨울에 **발등**이 흰히 드러나는 신발을 신었더니 발이 시려워 죽겠다.  
    ㄷ. 나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

(5ㄱ)의 ‘손목’은 신체의 일부인 ‘손’과 ‘팔’이 연결된 부분이다. 이때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손’과 ‘팔’을 연결하는 부분을 ‘손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손등’과 ‘발목’ 또한 ‘손’과 ‘발’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뒷부분을 ‘등’으로 표현하고 있

다. 한편 우리는 신체를 동물로 이해하기도 한다. (5ㄷ)의 ‘눈꼬리’는 눈을 동물로 인식하고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가 동물의 꼬리와 유사하다고 인식한 표현이다. 같은 원리로 ‘입꼬리’도 ‘입’을 동물로 인식하고 가장 자리의 얇은 부분을 동물의 꼬리로 표현한 것이다.

## 2. 환유에 의한 합성

이번 장에서는 환유에 의한 신체어 합성명사를 ‘신체 부분 환유’, ‘기능 환유’, ‘확장된 기능 환유’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신체어가 갖는 물리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이다. 환유는 동일한 틀, 영역, 이상적 인지모형 속의 매체라는 한 개념적 요소나 실체(사물, 사건, 특성)가 목표라는 다른 개념적 실체(사물, 사건, 특성)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과정이다(Kövecses 2006: 99).<sup>11)</sup> 결국 신체어 합성명사에서 환유는 신체가 갖는 물리적, 기능적 속성이 신체의 또 다른 부분과 기능을 나타내는 데 인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체의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과 확장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가령, 눈은 사물을 보는 기능을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귀는 듣는 기능에서 습득하는 기능으로 확장된다. 기본적 기능과 확장된 기능은 대체로 구분되는 편이다. 신체의 특징을 바탕으로 신체, 기능, 확장된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체 부분 환유에 의한 합성

신체가 사람을 가리키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11) 김동환이승주 역(2018: 35) 재인용.

- (6) ㄱ. 그가 평소 지식처럼 아끼고 **손발**처럼 부리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 ㄴ. 아이는 나를 보자 **낮가림**을 하듯 다시 울기 시작했다.
- ㄷ. 선거 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하여 열심히 돌아다닌다.
- ㄹ. **일손**이 모자란 농가에 군청에서 모내기 지원이 나가기로 했다.

(6ㄱ)의 ‘손발’은 ‘자기의 손과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나타낸다. 이는 사람 신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가지고 전체인 ‘사람’을 나타내는 환유가 작용된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손과 발로 사람을 지칭한 것은 신체 부위 중에서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을 특별히 선택하여 명명한 것이다. 즉 손과 발은 단순히 ‘손과 발’이라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녹아서 사용되므로 신체의 부분을 통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가 작용하였다.<sup>12)</sup> (6ㄴ) ‘낮가림’은 아이가 낮선 사람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체의 일부인 ‘얼굴’을 통해서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6ㄷ)의 ‘얼굴도장’에서 ‘얼굴’도 역시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며, (6ㄹ)의 ‘일손’에서 ‘손’도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신체어가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7) ㄱ. 그녀의 **파마머리**는 거의 풀린 듯했다.
- ㄴ. 지수는 늘 긴 **생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파격적인 **단발머리**

12)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확대지칭 환유’라 하는데, 인접한 두 요소 중, 부분이 근원이 되어 보다 더 큰 목표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분은 특징적이고 현저하므로 전체에 대하여 정신적 접근을 수행하게 된다(임지룡 2018: 290). 즉 신체의 특성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이 신체와 관련된 더 큰 영역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손’과 관련된 예가 확대지칭 환유에서 많이 나타난다.



를 하고 나타나 우리를 놀랬다.

ㄷ. 빨간 **머릿수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더 귀여워 보여.

(7)에서 ‘머리’는 머리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신체어 ‘머리’가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 국면이 매체가 되어 ‘머리’ 전체를 환기한 예이다. (7ㄱ, ㄴ)은 머리카락, (7ㄷ)은 머리의 윗부분이라는 머리의 하위 요소들이 ‘머리’를 환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더벅머리’, ‘대머리’, ‘앞머리’, ‘머리빗’, ‘머리끈’, ‘머리띠’, ‘머리채’, ‘흰머리’, ‘옆머리’, ‘곱슬머리’, ‘머릿결’, ‘골머리’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앞서 살펴본 신체의 일부가 사람이나 신체를 지칭하는 원리와는 반대로 신체의 더 큰 부분이 더 작은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다.<sup>13)</sup>

(8) ㄱ. 어린이들이 개구리알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ㄴ. 시상식에 참석한 여배우의 컷볼은 다이아몬드 **귀고리**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ㄷ.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내며 걸어갔다.

(8ㄱ)의 ‘손끝’은 실제로 ‘손가락의 끝’이지만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8ㄴ) ‘귀고리’는 ‘컷볼’, (8ㄷ) ‘발자국’은 ‘발바닥’(혹은 신발 바닥)이 된다. 이런 환유는 언중 간의 상호 이해가 가능할 때 허용되며, 이렇게 합성어로 소멸되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언중의 인정을 받은 단어라 할 수

13) 축소지칭 환유는 인접한 두 요소 가운데 전체가 현저한 매체가 되어 부분인 목표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임지룡 2018: 292). 즉 신체와 관련된 포괄적인 형태와 기능을 신체어를 통해 나타내는 언어 표현으로 신체어 합성명사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동작이나 신체의 한 부분이 신체어로 나타난다.

있다(최지훈 1998: 76). 즉 전체를 통해 부분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신체어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념화 원리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발야구’ ‘손자국’, ‘귀걸이’, ‘발끝’, ‘몸치장’<sup>14)</sup>과 같은 예도 환유가 작용되었다. 또 다음의 예에서도 우리는 개념적 환유가 작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ㄱ. 시험장으로 향하는 지수의 **발걸음**은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ㄴ. 복날을 맞아 **몸보신**도 할 겸 동료들과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

우리가 걷을 때는 발뿐만 아니라 다리와 몸도 함께 움직인다. (9ㄱ) ‘발걸음’은 걷는 움직임에서 현저한 ‘발’을 통해 몸의 다른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9ㄴ) ‘몸보신’은 보약 등으로 몸의 영양을 좋게 하는 일인데, 이때 ‘몸’은 ‘건강’을 말한다. ‘몸보신’이나 ‘몸시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2). 기능 환유에 의한 합성

신체의 각 기관은 고유의 기능이 있다. 가령 눈은 물체를 보고 손은 물체를 잡거나 만지고 귀는 듣는 기능이 있다. 신체어를 통해서 신체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10) ㄱ. 내 동생은 **잡귀**가 밝아 누가 오는 소리가 나면 바로 잠에서 깬다.

14) 우리는 흔히 ‘몸치장’을 할 때, 얼굴, 머리를 중심으로 한다. 몸의 모든 부분을 치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몸치장’에서 ‘몸’은 몸의 일부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나는 왼쪽 시력은 1.2였지만 오른쪽 시력은 0.4인 **작눈**이었다.
- 다. 할아버지는 **가는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끼셨다.
- 리. 우리 어머니는 세탁기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손빨래**를 하신다.

(10나)의 ‘잠귀’는 ‘어렴풋이 잠이 들거나 깬 상태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으로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을 의미하게 된다. (10나)의 ‘작눈’은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른 것으로 ‘눈’은 ‘시력’을 의미하고, (10다)의 ‘가는귀’는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즉 ‘귀’는 ‘청력’을 의미한다. (10리)의 ‘손빨래’는 기계 대신 수작업으로 빨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손’을 통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눈총(시선), 눈싸움(시선), 손질(움직임), 손빨래(움직임), 입맛(섭취)의 예가 신체의 기능 환유에 의한 합성어이다.

### 3). 확장된 기능 환유에 의한 합성

신체의 기능은 단순히 보고, 듣고, 만지는 기능에서 확장되어 만지면서 감각을 느끼고, 보면서 안목을 평가하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능으로 확장된다. 신체어 합성명사에서도 신체어의 이런 확장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손’은 만지고 잡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요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등의 기능으로 확장된다.

- (11) 가. 그 아이는 **손벼룩**이 나빠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곤 한다.
- 나. 할머니는 **손맛**이 좋아서 하시는 음식은 무엇이나 맛있다.
- 다. 배가 아프다가도 할머니가 어루만져 주시면 괜찮아지는 것을 보니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 리. 지수는 들고 있던 **손지갑**을 열어 내게 줄 돈을 꺼냈다.
- 마. 나는 중요한 소지품만 **손가방**에 넣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

(11ㄱ)의 ‘손버릇’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으로 ‘손’은 통해 물건을 훔치는 행위, 좋지 못한 행위를 나타낸다. (11ㄴ)의 ‘손맛’에서 ‘음식을 할 때 손으로 이루는 솜씨’를 의미하므로 ‘손’은 요리를 하는 솜씨에 해당한다.<sup>15)</sup> (11ㄷ)의 ‘약손’은 ‘아픈 곳을 만지면 낫는다고 하여 어루만져 주는 손’을 이르는 말로 ‘손’은 치료하기 위해 아픈 부위를 만져주는 치료 행위를 의미한다. 곧 신체어 ‘손’을 통한 특별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11ㄹ)의 ‘손지갑’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작고 간편한 지갑이다. ‘손’을 통해 휴대가 편한 물건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합성명사로는 ‘손거울’, ‘손난로’, ‘손가방’ 등이 있다. 다음의 예도 신체 기관이 갖는 확장된 기능이 부각된 합성어이다.

(12) ㄱ. 할아버지는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귀동냥**으로 한글과 한문을 조금씩 깨쳤다고 하셨다.

ㄴ.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이 가득했다.

ㄷ. 나는 싸웠던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친구의 **얼굴색**을 살폈다.

ㄹ. 그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인정머리** 없이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

(12ㄱ)의 ‘귀동냥’은 ‘어떤 지식에 대해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는 듣고 아는 기능으로, ‘동냥’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의 기본적 기능인 ‘청력’에서 듣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확장된 기능을 의미한다.(12ㄴ)의 ‘눈빛’은 ‘눈에 나타나는 감정’으로 ‘눈’은 시각의 기능에서 확장하여 감정을 담은

15) ‘손칼국수’의 ‘손’은 직접 면을 만들어 요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칼국수의 면을 기계로 만드는 것과 요리사가 직접 면을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12ㄷ)의 ‘얼굴색’도 얼굴에 나타난 기분이나 상태라는 의미로 ‘얼굴’은 감정이나 상태를 표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6)</sup> (12ㄷ) ‘인정머리’는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머리’는 됴됨이나 인성의 속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머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생각하고 판단을 바탕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 즉 됴됨이나 인성을 ‘머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이 외에도 눈치(판단), 첫눈(느낌 지각), 눈높이(안목), 눈길(관심), 안달머리(인성), 발자취(경험), 발판(도약), 손길(인정), 발길(왕래), 손재주(만듦), 검은손(영향력) 등이 확장된 기능 환유의 예가 된다.

#### IV. 신체어 합성명사의 교육 내용

전통적으로 합성어 교수 학습의 어려움은 합성된 단어는 그 구성요소의 본래 뜻을 짐작하지 못하고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의 시각으로 합성어를 바라본다면, 구성요소의 원형적 의미가 확장되어 여러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성어 학습과 교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변화된 의미의 관계가 융합적이지 아니며, 은유와 환유의 기제로 구성요소의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sup>18)</sup> 학습자들에게 합성어 구성하는 요

16) (12ㄴ)의 ‘눈빛’과 (12ㄷ)의 ‘얼굴색’은 환유와 은유가 함께 작용하였다. (12ㄴ)에서 ‘눈’은 환유가 작용한 ‘감정’, ‘빛’은 은유가 작용한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 (12ㄷ)에서도 ‘얼굴’은 환유로 ‘기분’, ‘상태’, ‘색’은 은유로 ‘분위기’로 해석된다.

17) 배도용(2002: 276-280)은 ‘년덜머리’, ‘배알머리’, ‘인정머리’에서 ‘머리’의 주변 의미로서 사람의 됴됨이나 능력 따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고 복합명사를 구성할 때 후행 요소로만 사용한다고 했다.

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지, 그러한 의미 형성을 위해 은유와 환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1. 교육 방법

합성어는 말 그대로 어근이 ‘합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근의 원형적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 합성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어휘 형식으로 의미 결합 관계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의 세 가지 의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주된 교수학습 방법은 단순히 구성요소의 의미관계를 암기하거나 문맥을 이용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에서는 합성어를 본질적으로 개념화의 문제로 다루어 합성어의 의미 변화에는 은유·환유라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사은유’가 아닌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나 환유의 작용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합성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효과적인 합성어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은유·환유적 기제를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문맥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관련된 다른 어휘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어휘 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sup>19)</sup>

18) 예를 들어 ‘손+ 버릇, 손+ 밧’ 등과 같이 결합 이전과 이후, 의미가 변화하는 구성요소 ‘손’의 비유적인 의미 교육이 중요하다.

19) King(1999)는 개념적 은유를 기반으로 ‘생각’, ‘지식’, ‘논쟁’, ‘감정’, ‘돈’, ‘통제’, ‘사람’, ‘삶’을 주제로 관용표현을 설명하였다. 킹은 서문에서 표현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알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은유’는 언중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은유를 통한 어휘 의미 설명은 목표어의 일상적인 원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이에 본고에서 합성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어에 관한 교육은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인지적 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둘째, 합성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사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습자들이 단순한 기계적 암기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의미탐색을 통해서 어휘를 습득해야 한다. 셋째, 관련된 어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어휘 의미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 2. 교육 내용

신체 관련 비유적 합성어의 여러 범주 중에서 ‘그릇 은유’를 예시로 교육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는 그릇이다]

- ① 그릇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음식을 가득 담을 수 있다. 그릇이 비어 있을 수 있다.
  - 그릇은 위와 아래가 있다. 뚜껑과 바닥이 있다.
  - 그릇은 중앙과 가장자리가 있다.
- ② 관련된 단어를 봅시다.
  - 몸속, 입속, 뱃속, 머릿속, 머리통, 몸통, 입가, 손안, 발바닥, 손바닥, 빈손, 온몸, 귀마개

---

출 수 있다.

## ③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
- 집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
- 과자를 손바닥에 올려줘.
- 몸속 가스 배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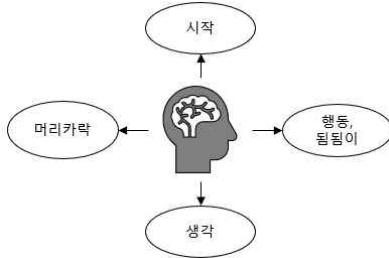
## ④ 다른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 마음속(맘속), 뱃속, 가슴속, 귓속, 빈속, 입속, 빈주먹....

우리는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신체는 그릇]은유를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나아가[몸은 그릇], [손은 그릇],[입은 그릇] 등의 은유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합성어에서 이러한 은유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 상당히 관습적이고 중요한 개념화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습적 표현을 은유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의미로서 또 다른 어휘를 생산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신체는 그릇] 은유를 통해 관용표현으로 수업 내용을 확장할 수도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표현 중에서 ‘두려움이 가득하다’, ‘사랑에 빠지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다’ 등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그릇’으로 개념화한 예이다. 따라서 신체어 합성어에 나타난 은유를 통해 관용표현으로 어휘를 확장할 수도 있다. 다음은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을 기반으로 ‘머리’를 포함한 합성어의 교육 예시이다.



### ['머리'의 기능 환유]



- ① '머리'의 위치와 관련된 신체부위를 말해봅시다.
  - 몸의 가장 윗부분에 있다.
  - 머리카락, 얼굴, 이마, 목, 뺨...
- ② 관련된 단어를 말해봅시다.
  - 머리카락: 머릿결, 생머리, 곱슬머리, 더벅머리, 머리빗, 머리채, 앞머리, 흰머리, 옆머리, 파마머리, 단발머리, 대머리, 머릿수건...
  - 머리기사, 끝머리, 머리말, 베갯머리, 뺨머리, 책머리
- ③ '머리'가 하는 일을 말해봅시다.
  - 생각하다, 판단하다...
- ④ 관련된 단어를 말해봅시다.
  - 생각하다, 판단하다...
  - 인정머리, 안달머리, 꼴머리, 머릿속...

신체어는 물리적 위치, 관련된 신체 부위를 통해서 의미를 생성하고 신체의 기능을 통해서도 의미를 생성한다. 예컨대, 우리는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머리'를 사물의 끝부분으로 인지하기도 하고 시작하는 시점

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이로써 배의 앞 부분인 ‘뺏머리’나 글의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머리말’과 같은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 또 ‘머리’에 인접한 신체 부위인 ‘머리카락’을 통해서 ‘대머리’, ‘곱슬머리’, ‘파마머리’, ‘앞머리’와 같은 다양한 머리 모양과 관련된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의 기능적인 속성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머리’의 기능을 통해서 ‘인정머리’, ‘안달머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유와 환유는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관련된 어휘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나타나는 은유와 환유 양상을 함께 파악하고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마무리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신체어 합성명사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어휘』와 『국제통용』의 어휘 목록에서 ‘귀, 눈, 머리, 몸, 발, 손, 얼굴(낮), 입’이 포함된 비유적 합성명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기제인 은유/환유를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 어휘를 분석하고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유적 합성어의 교육 방법을 제안하여 그것에 맞는 교육 내용을 ‘그릇 은유’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인지언어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신체 관련 합성명사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기존 논의에서 합성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인지언어학의 원리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었다. 전통적으로 합성어는 대등, 종속, 융합의 세 가지 의미 유형을 가진다고 보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변화된 의미의 관계가 융합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합성어는 개념화한 것으로 의미 변화에는 은유 환유라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합성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지언어학적 해석의 제공은 학습자가 합성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되어 기계적인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관용표현 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어휘-표현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모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부 신체어가 포함된 합성명사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신체어가 포함된 합성명사, 합성용언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휘 확장을 위한 풍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 합성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권연진,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의 보편성과 상대성』, 한국문화사, 2017.
-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1993.
- 김동환, 『환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2019.
- 김보경, 「한국어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억조, 「신체어에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 표현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31집, 2015, pp.47-69. (UCI : G704-SER000001636.2015.31.31.008)
- 김억조a, 「인지언어학에 기초한 2017년 신어의 의미 구성 연구」, 『문화와 융합』 제42집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pp.615-637.
- 김억조b, 「2018년 국어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45집, 국제언어학회, 2020, pp.85-115.
- 김일병, 『국어 합성어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0.
- 김정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선정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정아·최준,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배달말』 제65집, 배달말학회, 2019, pp.201~227.
-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 김진혜,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와 인지언어학적 해석」, 『국어학』 제70집, 국어학회, 2014, 29-57. (DOI : 10.15811/jkd.2014..70.002)
- 김효신,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부사격 조사 -으로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와인지』 제4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14, pp.65-75.
- 문금현, 「한국어 명사 눈의 교육 방안」, 『한국어 의미학』 제21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105-139. (UCI : G704-001001.2006.21..005)
- 박근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 기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박수경, 「인지언어학과 TPR교수법에 의한 한국어 교육 활용방안 고찰-다의어 '잡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언어학』 제7집 1호, 국제한국어문화학회, pp.172-196. (UCI : G704-SER000008633.2010.7.1.009)
- 박화경, 「동사 '빠지다'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및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배도용, 「우리말 “머리”의 의미 확장 연구」, 『국어학』 제40집, 국어학회, 2002, 269-296.
- 서정수, 『국어문법』, 한세본, 2006.
- 서강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다'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송현주, 「한국어 합성어에 나타난 동기화 양상」, 『한글』 제289집, 한글학회, 2010, pp. 125-150. (UCI : G704-000020,2010.,289,001)
- 송현주, 「신체어의 비유적 의미에 대한 말뭉치 기반 접근」, 『어문론총』 제74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pp.77-105. (DOI : 10.22784/eomun.2017.,74,77)
- 시정곤,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1998.
- 신희삼, 「합성어 기능에 따른 합성명사의 형성 원리」, 『한국어 의미학』 제22집, 한국어의미학회, 2007, pp.141-163. (UCI : G704-001001,2007,22.,003)
- 이미영, 「은유-환유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성 탐색」, 『영어영문학』 제20집, 미래영어영문학회, 2015, pp.111-131.
- 이민우,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34집, 한국어의미학회, 2011, pp.235-258. (UCI : G704-001001,2011,34.,015)
- 이보영, 「신체어를 통한 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선희, 「개념적 혼성 이론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지용 · 심지연, 「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 : 영상도식 은유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31집, 한국어의미학회, 2010, pp.209-247. (UCI : G704-001001,2010,31.,005)
- 임지룡,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pp. 87-132.
- 임지룡 외,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2005.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임지룡,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배달말』 제59집, 배달말학회, 2016, pp.1-42. (UCI : G704-000768,2016.,59,005)
- 임지룡,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2018.
- 정수진, 「인지언어학에 기초한 한국어 공간 개념 부사격 조사의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 『어문학』 제112집, 한국어문학회, 2011, pp.79-110. (UCI

: G704-000112, 2011, .112, 011)

- 최규일, 「한국어와 독일어의 말(어휘) 형성 비교 연구(1) - 합성어[합성명사]의 형태와 의미 분석 중심」, 『한국어의미학』 제10집, 한국어의미학회, 2002, pp.1-72.
- 최지훈, 「전의합성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지훈, 「합성명사의 의미」,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19, pp.824-848.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29/2004.
- 최혜림, 「한국어 교육에서의 다의 동사 ‘뜨다’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한송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2015.
- 함계임, 「한국어 대립연결어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지만”과 “그렇지만”, “-(으)나”, “그러나”를 중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pp. 84-103.
- 홍사만,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2003.
-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2007.
-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2000.)
- King, K., *The Big Picture: Idioms as Metaphors*, Boston: Houghton Mifflin, 1999.
-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2/2010. (이정화 외 공역, 『실용입문서 은유』, 한국문화사, 2003/2010.)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2003. (노양진 · 나익주 공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 Lakoff, G.,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 Lewis, M.,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1993. (김성환 역,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02.)
- Lewis, M.,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J. Coady & T. Huckin(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255-270.

- Littlemore, J., *Metonymy: Hidden Shortcuts in Language, Thought,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김동환·이승주 옮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언어, 사고, 의사소통의 숨겨진 지름길』, 로고스라임, 2018.)
- Low, G., On teaching metaphor, *Applied Linguistics* 9, 125-147, 1988.
- Martinez, R. & Schmitt, N., A Phrasal Expressions List, *Applied Linguistics*, 2012, pp. 299-230.
- Picken, J. D., Helping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make sense of literature with metaphor awareness-raising. *Language Awareness*, 14, pp.142-152. 2006.
- Piquer-Piriz, A. M., Young learner's understanding of figurative language. In M. S. Zanotto, L. Cameron, & M. C. Calvacanti(Eds.), *Confronting metaphor in use: An applied linguistic approach*,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hamins, 2008, pp.183-198.

**Abstract**

## The Semantic Education of Compound Nouns Including Body-Part Terms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Weiyun · Kim, Jung-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compound nouns that include body-part terms and discuss methods for semantic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know a lot of vocabulary, they must be able to understand and express that vocabulary. To achieve this end, learners must know the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and semantic relationship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body-part terms from a cognitive-linguistic perspective with compound nouns that include body-part terms in order to propose efficient learning content and methods. Body-part terms are basic vocabulary, but at the same time, they expand into various meanings. Therefore, body-part terms help Korean-language learners learn the principles of expanding lexical meaning. Because, according to cognitive linguistics, language reflects the way humans think, Koreans' use of compound nouns that include body-part terms reflects the general way they think. With these principles in mind, the study analyzed compound nouns that include body-part terms as conceptual metaphors and conceptual metonym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d a learning method using conceptual metaphors to represent [The body is a container] and [Body organs are containers.]



Key Word : compound noun, body-part terms,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Korean- language teaching

위윤

소속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306837400@163.com

김정아

소속 :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전자우편 : piscean00@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

